

# 완도군, 자원활용 해양치유 테라피제품 개발 순항

## 머드팩·고농축 애플·입욕제 등 품평회 의견 수렴 보완·연구

완도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머드팩, 고농축 애플, 입욕제 등 테라피 제품 개발이 순항 중이다. 완도군은 제품 품평회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치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 여대 황룡관에서 미용과학부 교수, 학생, 스파 관련 관계자, 완도군 평가단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군에서 개발 중인 28개 테라피 제품 중 대표 제품 10여개를 선정해 진행했다.

10여개 제품은 피부 미용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머드팩, 피부 컨디션 회복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식물체 연화 기술을 활용한 해조류 고농축 애플, 긴장 완화 및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입욕제, 피부 영양 및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스크럽 등이다.

품평회에서 '다른 테라피 제품에 비해 건조함이 없고 산뜻함과 보습력이 좋다', '입욕제의 경우 노폐물 제거가 잘 돼 개운하고 좋았다', '해조류 껍질의 경우 피부 컨디션이 개선됐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제품 주원료인 해조류와 갯벌 특유 비린냄새에 대한 호불호가 있으니 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스크럽 제품은 다소 입자가 거칠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군은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 5월 해양치유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바닷물, 갯벌, 해조류 등 16개 치유 요법 시설에 활용할 제품을 개발 중이다.

군은 이번 품평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완도만의 치유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테라피 제품의 주원료는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해조류와 갯벌이며 황칠, 비파, 유자 등 약리 효능이 입증된 특화 자원도 활용했다.



완도군이 개발 중인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28개 가운데 품평회에서 선정된 제품 10여개. 완도군 제공

Mer(바다)와 Clarte(정정환)를 조합한 MERCLAR(메글레)로 브랜드 네이밍을 확정하고 BI도 개발 중이다.

제품이 확정되면 임상 시험과 특허 출원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미 광주여대 교수는 "완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완성도 있는

테라피 제품이 생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테라피 제품은 해양치유센터 운영의 성공,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성공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므로 품평회 의견을 수렴해 효능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앞장 함평군, 14~15일 성금 모금

함평군 전 공직자와 군민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및 구호물품 모집 활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상의 군수를 비롯한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14~15일 공직자 성금 모금을 진행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모금 활동을 실시한다.

구호물품은 15~21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접수받으며 물품은 코트, 재킷, 우버, 부츠, 점퍼, 바지, 장갑, 모자 등 방한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구호 성금 기부를 희망하는 군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320-1473)으로 문의. 함평=신재현 기자

## 목포·진도 사설항로표지 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진도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는 개인적인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등대, 부표 등을 말한다.

대상은 천사대교 교량표지 운영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83개사 360기와 위탁관리사 6개사다.

점검사항은 인허가 사항, 준시설물 관리상태, 고시기능 유지, 선박보험 가입, 안전시설 적정성 여부 등이다.

목포해수청은 관할 구역 실태점검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진도군 의신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진도군 의신면이 최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진도군 제공

## 박홍률 목포시장 " 시내버스 운행 재개 환영...경영개선안 필요"

### 재발시 '사업면허 취소' 조치

목포시가 65일 만에 운영을 재개한 목포시내버스와 관련 "운영 정상화는 환영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경영개선안을 요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들은 이번 운영 재개가 사측의 경영개선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운영중단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경영개선안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경영개선안은 다시 운영이 중단되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경영안정 자금 확보 등 확실한 대책 마련과 기업회생절차 제안보다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개선안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해 12월12일 가스비 체납으로 멈춰선 목포시내버스는 운영 중단 65일 만인 이날 오전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회사 측에서 가스비 체납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면서 가스공급이 재개된 데 따른 것.

박 시장은 "중단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재무관리단은 시와 시의회, 버스회사 간 3자 협의 후 과견여부를 결정하고 시내버스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권을 최우선해 즉시 '사업면허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시내버스 미운영 시 그 대안으로 공공형 버스를 확대하고 대체 사업자 투입 등 대응계획을 세워 시내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시내버스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7월 준공영제·공영제 운영 결과를 종합해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노사정 등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정기찬 기자

## 강진군, 광주·전남 최초 AI 챗봇 시연회

강진군이 광주·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챗GPT 시연회를 가졌다. 시연회에서는 쌀값올리기, 고려청자만들기 등을 시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실·과 직원 등 50여명은 14일 오픈AI가 개발한 챗봇 '챗

GPT'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첫 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군정의 핵심 목표로 세웠다.

참여자들이 직접 챗GPT를 활용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평가하는 시간으로 채

워졌다. 관련 질문을 하면 몇 초 안에 관련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다. 챗GPT가 내놓은 답안이 올바른 정책인지, 실효성이 있는 답변인지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강진에 홀로사는 노인 복지대책, 인구증가 정책, 쌀값 올릴 수 있는 방법, MZ세대가 관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등 질문이 이어졌다. 강진=김윤복 기자

## 고향사랑기부 도시에 화답 신우철 완도군수

신우철 완도군수가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생수를 지원해 준 전국 4개 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감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 군수는 가뭄 장기화로 제한급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지역에 생수 등을 기부한 전북 김제시, 경남 밀양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양평군 4개 자매·우호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박일호 밀양시장은 자매결연 도시 간 협력을 위해 완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신 군수는 "자매·우호 도시 간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 무안군 청렴 TF팀 구성 청렴도 향상 특단대책 마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음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군수를 총괄로 한 청렴 TF팀은 청렴도 평가항목 업무와 관련된 보조금, 세정, 계약, 공사, 인사 등 감사팀을 주축으로 4개반 15개팀으로 구성했다.

TF팀은 인허가, 공사분야 등에서 청렴체감도가 타 지역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낮게 평가된 분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팀이 부서별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청렴인식을 함양해 나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를 월 1회 제출받아 청렴 자기성찰의 마음을 다지기로 했다.

부서별 1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교육을 공무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 함평엑스포공원 상춘객 맞이 야간경관·자동차극장 운영

함평군이 엑스포공원 상춘객 맞이에 본격 나서고 있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곧바로 엑스포공원 일원에 켜지는 야간경관은 색색의 빛나는 조명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평엑스포공원에는 형형색색의 경관 조명 12종 4424점, 야간경관조형물 31종이 설치돼 있다.

조명과 조형물은 중앙광장 바닥조명, 꿈나무·희망나무 LED 미디어, 빛벤치, 터널조명, 건축물 벽면을 활용한 고보조명 등 공원 전역에 설치돼 있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야간경관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

또 하나 볼거리는 엑스포공원 입구에 있는 '함평자동차극장'이다. 지난 2021년 1월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 개장한 함평자동차극장은 상영관 2곳(나비관·황금박쥐관)과 매점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매주 신작 영화를 개봉한다. 15일 신작 '엔트맨과 와스프'가 개봉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함평=신재현 기자